

비회원국협력위원회

2004년 10월 개최된 비회원국협력위원회(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Non-Members: CCM)에서는 중동, 아프리카지역 협력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동 사업의 동향과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1. 논의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의 16개 국가는 OECD/UNDP 등 국제기구와 아랍개발은행 등 역내기구와 협력하여 동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 거버넌스 개혁”, “투자분야 개혁”을 2004년 10월~2007년 6월간에 추진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운영그룹 회의 등을 통해 기반 조성을 마치고 현재 시작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40만 달러), 일본(18만 유로), 영국(금액 미정) 등은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할 예정인바, 우리도 관심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MENA 사업 개요

MENA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요르단, 이집트 등 역내 16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 거버넌스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OECD/UNDP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원하고 있고, 2004년 G8 정상회의에서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개혁에 관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여 MENA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3년(2004년 10월~2007년 6월)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실무를 담당하는 작업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운영그룹, 그리고 장관급 회의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가. “투자” 분야 사업현황

알제리, 바레인, 지부티,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예멘 등 16개 MENA 국가와 OECD, UNDP, 국제투명성기구(TI) 등 18개 국제기구 및 역내기구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등 14개 OECD 회원국이 2004년 9월 요르단 운영그룹회의에 참여하였다. 5개 작업그룹이 다음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WG1: 투명하고 개방된 투자정책
- WG2: 투자진흥기관과 민간 경제단체의 역할 증대
- WG3: 투자를 위한 조세체계 및 조세 인센티브 평가
- WG5: 경제다변화를 위한 금융정책과 기

업육성정책 개선

· WG5: 기업지배구조 개선

3년간 총사업비는 513만 3,000유로로 OECD가 부담하며 OECD 회원국 및 MENA 국가도 자발적 기여금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40만 달러), 일본(18만 유로), 영국(금액 미정)이 자발적 기여금을 이미 제공하였거나 제공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MENA 국가도 재정지원의사를 표명하였다.

나. “공공 거버넌스” 사업현황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등 MENA 12개국과 OECD/UNDP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작업그룹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WG1: 공공서비스정책과 공무원의 청렴문제
- WG2: 전자정부, 행정간소화 및 규제개혁
- WG3: 공적재원에 대한 거버넌스
- WG4: 국민과 민간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 WG5: 사법부 개혁과 법 집행
- WG6: 시민단체와 언론

3년간 총사업비는 943만 5,300유로(연간 314만 5,100유로)로 OECD/UNDP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3. 시사점

MENA 사업은 MENA 국가들의 주도와 G8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OECD에서는 미국이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는 등 2003년 하반기부터 동 사업 추진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터키, 이탈리아 등 MENA에 인접한 OECD 회원국들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 사업을 통해 MENA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일본 등도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선진국가를 대표하는 OECD와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UNDP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지역국가들에 “공공 거버넌스”와 “투자” 분야에 대한 우리 경험을 전수하여 이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보다 강화함과 아울러 MENA 국가의 투자 및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바,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 거버넌스” 6개 사업분야, “투자” 5개 사업분야 중 우리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와 MENA 국가에 대한 수출 및 투자증대효과가 있는 세부사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우선 “공공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전자정부와 행정간소화”, “투자” 분야

에 “투자진흥기관의 역할 제고” 등 다수 이슈
에 대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해룡 주OECD대표부 참사관

hrkwon84@mofat.go.kr】